

정책 이슈페이퍼 12-06

사회책임경영을 고려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촉진 방안

■ 이호무 외

목 차

- I. 연구배경 / 1
- II. 조사 및 분석 결과 / 3
- III. 정책 제언 / 14
- IV. 기대 효과 / 17
- 〈참고자료〉 / 18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 배경 및 문제점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필요성

□ 대다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 조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나 규제의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현실적¹⁾
- 상기 정책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중소기업의 감축실적을 크레딧화하여 대기업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린 크레딧 제도 등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는 중요

-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서의 감축 노력 강화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및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스스로 대비해 나아갈 필요

1) 에너지관리공단(2008)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기업의 99%가 2014년 1월 이후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지정 기준인 연간 에너지 사용량 80TJ(약 1,910TOE)에 미달함.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중소기업 감축 노력 촉진 가능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해외 정책 및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

- CSR은 기업이 자신의 영향력과 위치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개념으로서 기업 경영 상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대두
- CSR이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었던 이전과 달리 최근 들어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장기 경영비전의 필요성을 고려, 중소기업 CSR을 중시
- 대기업과는 상이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CSR 개념은 대기업과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
 - 대기업에서 CSR 추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 CSR은 일상적 기업 활동에 내재화되어 비공식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중소기업은 지역사회와의 밀착성이 높은 편이므로 CSR 활동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조되는 경향

□ CSR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대로 CSR의 틀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 기업이 CSR 차원에서 제조·운송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규제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대표적
 - 대기업이 CSR 차원에서 공급사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

Ⅱ. 조사 및 분석 결과

1.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개관

- 설문조사 목적: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촉진에 있어 자체적인 CSR 추진과 공급사슬을 통한 대기업의 요청이 갖는 영향력 확인
 - 설문조사 본문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기업의 영향력, CSR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감축행동 수준, 감축행동의 장애요인과 강화요인에 대하여 질문
 - 대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은 대기업의 감축 노력 동참 요청 경험 여부, 대기업이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
 - CSR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 CSR 인식 수준, 여타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요인 대비 CSR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질문
 - 그 외에 회사 현황, 설문응답자의 주 업무 등 조사 결과 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도 설문에 포함
- 2012년 7월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홍보 및 중소사업장 대상 정부 지원 내용에 대한 지역순회 설명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명회 참석자들은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총 67명이 설문에 답하였으나 최종 활용된 것은 총 48건
 - 활용되지 못한 설문은 배출량은 적으나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이상이어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

- 유효 설문 48건 중 제조업체가 43개 업체에 이르렀으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11곳에 불과
-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는 중소기업도 상당 수가 목표관리제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판단

<표 1> 설문 응답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명)

제조업		비제조업	무응답
에너지 다소비 업종*	기타		
11	32	4	1
(23%)	(67%)	(8%)	(2%)

* 펄프·제지·종이제품, 유리·요업·시멘트(비금속광물), 철강·비철·주조(1차금속), 화학물질 및 제품, 의약품 등 총 4개 업종

2.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설문 응답 기업체 및 임직원: 온실가스 감축 업무 담당자 중 다수는 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이 부수적 업무
- 근로자 수 기준으로 50인 이하(19곳)와 50~300인(22곳), 연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14곳)와 100~1,000억원에 속하는 기업(13곳)의 수가 비슷
- 온실가스 감축 설명회 참석자인 응답자 중 37명(77%)이 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업무가 본인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라고 답변
 - 전체의 절반이 넘는 26명이 비중이 미미하다고(20% 미만) 밝혀서 이들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표 2> 응답자 업무 중 에너지 관리 또는 온실가스 감축 업무 비중

(단위: 명)

미미함 (20% 미만)	일부분 (20~50%)	상당 부분 (50~80%)	전담 (80% 이상)
26	11	4	3
(54%)	(23%)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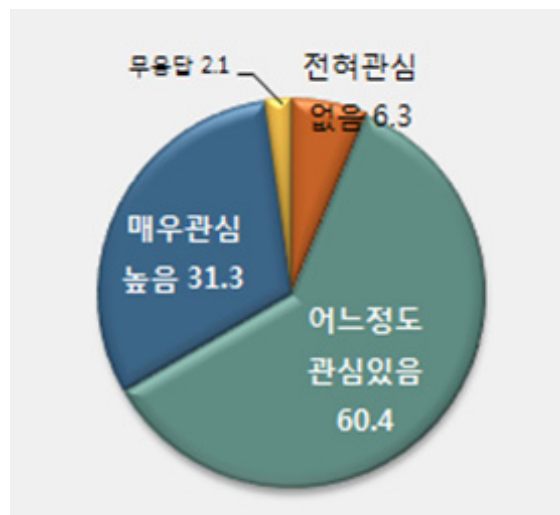
□ 온실가스 감축 노력: 관심은 있으나 정보 부족 등 장애요인으로 인해 실제 감축 노력으로 이어지는 데에 한계

○ 설문 참여자 48명 중 절대 다수인 44명이 자신의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

- 설문조사가 중소기업 대상 온실가스 감축사업 설명회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조사 표본 자체가 관심 있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 높음.

[그림 1] 소속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심 수준

(단위: %)



- 관심을 갖게 된 동기로 '비용 절감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4.33점)된 반면 '이해관계자의 요구'는 큰 영향이 없는 것(2.88점)으로 조사
 - ※ 이하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 크레딧 판매 등을 통한 수입 창출 가능성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을 크게 유발시키지는 못한다(3.43점)는 의견 확인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실제로 행하는 경우는 응답 기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 제시된 조치 중 '실내온도 관리, 고효율 조명, 플러그 뽑기 등 일상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최다(30명)
 - 절반 이상은 에너지 비용을 최고경영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심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그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
- 온실가스 감축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여러 사항이 고루 지적되었으나 경영진/회사의 낮은 관심은 대체로 장애요인이 아니라고 답변

<표 3>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장애요인

(단위: 점)

가능한 장애요인	평균
경영진 또는 회사 전체적으로 낮은 관심	2.70
자금 부족	3.36
사내에 축적된 기술/역량 부족	3.27
업무를 맡을 인력 부족	3.36
정보 부족(정부 정책, 지원프로그램 등)	3.60
저탄소 제품 생산에 대한 혜택 미흡	3.50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	3.47

-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요인으로서는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 ‘최고경영자의 의지’ 등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
- 이러한 답변은 관련 연구에서 중소기업 CSR 촉진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내용과 일치

<표 4>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에 효과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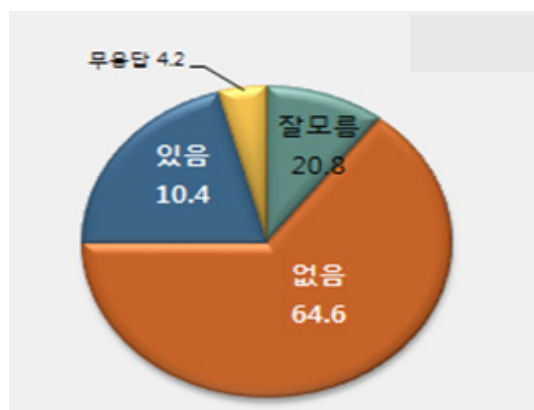
(단위: 점)

가능한 강화요인	평균
최고경영자의 의지	4.22
거래하는 대기업의 관련 협조 요청	3.57
정보 제공	3.71
정부 규제 또는 제도 강화	3.80
재정적 지원	4.30
기술적 지원	4.13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	3.83
국가적 여론 형성, 최종소비자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3.76
전기료,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	3.78

- 대기업의 협조 요청: 응답 업체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

[그림 2] 하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협조 요청 여부

(단위: %)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5곳(10.4%)에 지나지 않은 반면 없거나 잘 모른다는 업체는 41곳(85.4%)으로 확인
 -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 5곳 모두 모회사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
 - 비교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다른 경영 상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질문한 바, 받은 적 있다는 답변은 10곳에 불과
 - 배출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동참을 요구하지 않고 있거나 이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직접적 연계가 없음을 시사
- 대기업 또는 납품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의향은 있으나 관련 비용 보전이 있어야 협조 가능하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음.
 -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협조’, ‘기본적 지원 전제 시 협조’ 의견도 적지 않아 대기업의 공급사슬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를 거둘 가능성을 일부 확인

<표 5> 대기업/납품업체의 협조 요청 시 대응 방향

(단위: 명)

	특별한 지원 없이도 협조	기본적 지원 전제 시 협조*	관련 비용 보전 시 협조**	거래 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협조하지 않음	기타	무응답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제출 요청	15 (31.3%)	12 (25.0%)	19 (39.6%)	0 (0.0%)	1 (2.1%)	5 (10.4%)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요청	14 (29.2%)	12 (25.0%)	18 (37.5%)	0 (0.0%)	0 (0.0%)	5 (10.4%)

* 원문: 측정설비 설치, 관련 교육 실시 등의 기본적인 지원이 전제되면 협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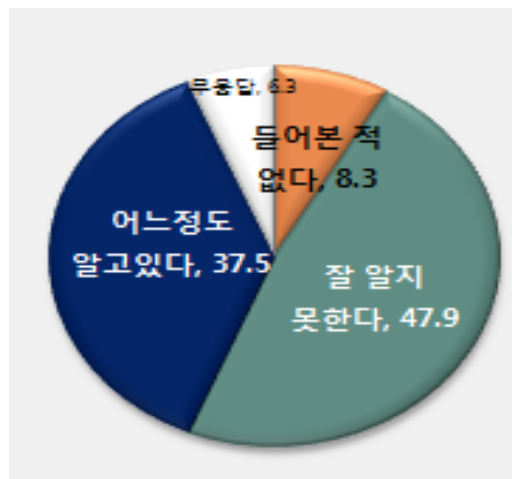
** 원문: 설비, 교육 외에 우선구매, 인력 지원 등으로 관련 비용이 보전되면 협조한다.

□ **CSR의 역할:** CSR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태이며 CSR이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 27명(56.2%)이 CSR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중소기업 내 CSR 인식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은 18명(37.5%)

[그림 3] 응답자의 CSR 인지 수준

(단위: %)



- CSR의 이미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 전략의 하나’와 같은 협소한 이미지에 많은 응답자가 동의
- 자신의 회사가 법규나 규제를 지키는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6건이었으며 CSR 활동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위주인 상황
- 법규/규제 준수 차원의 노력만을 한다는 답변이 34건이며 이해관계자 별 CSR 활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CSR 활동이 없다는 답변은 13건
- 이해관계자별 CSR 활동에 있어 주 대상이 근로자라고 답한 응답자가 18명으로 지역사회(7명), 국가 전체(9명)인 경우를 상회

<표 6> CSR에 대한 이미지 부합도

(단위: 점)

이미지 예시	평균
회사 이윤을 증가시켜 줌	3.37
최고경영자의 개인 신념으로 추진	3.60
마케팅 전략의 하나	3.84
일상적인 기업 경영활동	3.46
대기업에 해당되는 개념	3.46
기업/실무자에 불필요한 부담 증가	3.38
이해관계자 및 사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	3.67

- CSR 활동 강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비용 부담’(3.83점)과 ‘업무를 맡을 인력 부족’(3.81점)을 지적
- ‘이미 사회책임활동을 성실히 실행 중’이어서 CSR 활동 강화가 쉽지 않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표 7> CSR 강화의 장애요인

(단위: 점)

장애요인	평균
경영진 또는 회사 전체적으로 낮은 관심	3.16
지식 및 경험 부족	3.58
비용 부담	3.83
업무를 맡을 인력 부족	3.81
결과 및 혜택에 관한 불확실성	3.56
이미 사회책임활동을 성실히 실행 중	2.86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장애요인과 CSR 활동 강화의 장애요인을 비교한 결과 CSR 강화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
 - 유사하게 제시된 장애요인에 대하여 장애요인이 맞다고 동의하는 수준(점수)이 CSR 쪽에서 일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8>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CSR 강화의 장애요인 비교

(단위: 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장애요인		CSR 강화의 장애요인	
경영진/회사 전체적으로 낮은 관심	2.70	3.16	경영진/회사 전체적으로 낮은 관심
자금 부족	3.36	3.83	비용 부담
사내에 축적된 기술 및 역량 부족	3.27	3.58	지식 및 경험 부족
업무를 맡을 인력 부족	3.36	3.81	업무를 맡을 인력 부족
저탄소 제품 생산에 대한 혜택 미흡	3.60	3.56	결과 및 혜택에 관한 불확실성

- CSR 강화가 다른 감축 노력 강화요인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대부분인 바, CSR을 통한 감축 노력 강화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
 -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요인 중 가장 중시되었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CSR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명

[그림 4] CSR과 여타 요인 간 온실가스 감축 강화 효과성 비교



<표 9> CSR과 여타 요인 간 온실가스 감축 강화 효과성 비교

(단위: 점)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요인	평균
거래하는 대기업의 관련 협조 요청	3.26
정보 제공 (유사업체/인근업체의 우수사례 등)	3.13
정부 규제 또는 제도 강화	3.60
재정적 지원(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저리융자 등)	3.86
기술적 지원(정부, 에관공, 대기업 등)	3.86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	3.66
국가적 여론 형성, 최종소비자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3.41
전기료,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	3.61

※ 5점 척도로서 3점이면 CSR과 제시된 강화요인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임. 5점이면 제시된 강화요인이, 1점이면 CSR이 훨씬 효과적임을 의미함.

3. 대기업 관계자 인터뷰

□ 공급사슬의 녹색화(greening)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한 곳 (이하 'A사'로 지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추진 담당자를 인터뷰

- A사는 해외 수출에 필요한 환경경영 전파 차원에서 자사 공급사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하 'B사업'으로 지칭)을 시작
- 이후 자사나 특정 생산공정만을 들여다보는 일반적 배출규제와 다른 개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는 회사 차원의 의지로 확대
 - 공급사슬 상류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아 공급사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는 것이 A사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

- 공급사슬 배출량 관리 사업은 대표부품 위주로 추진 중이며 공급사슬 내의 모든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 비용효과성 차원에서 모든 협력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선택된 대표부품의 배출량을 80% 정도 파악하는 수준으로 협력업체 참여 유도
 - A사는 통상적으로 대기업인 1차 공급자와 B사업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하고 1차 공급자는 또 상류에 전달하는 순차적 방식으로 진행
 - 모든 협력업체와 직접 접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상류까지 B사업이 전파되는 데에 어려움 존재
- 중소기업의 가장 큰 참여 동기는 비용절감이며 대기업의 영향력이 정부보다는 크나 대기업이 실제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한적
 - 회사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없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 B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도 실제 필요한 지원은 A사가 아닌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받는 등 정부의 기술적 지원은 장애요인이 아닌 상황
 -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에너지 절약, 해외 시장 규제 대비 등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환경 관련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자사와의 거래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효과가 두드러지는 편은 아님.
 - 대부분의 기업에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구매 담당 부서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가격과 품질이므로 환경 관련 평가의 반영은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

□ 공급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한 정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는 높지 않은 편

- 정부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은 바람직하나 일부 정책은 대기업이 협력하는 데에 장애물이 존재
 - 예를 들어 다른 크레딧에 비하여 고가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크레딧을 대기업이 원활히 구매하려면 관련 사내 규정 점검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비자, 시민사회의 압력도 크지 않아 B사업의 경우 장기적 안목에서 CSR의 일환으로 하는 자발적 행동에 해당
 - 시민단체로부터 배출총량, 탄소발자국 정보 공개 요청이 있으나 기업비밀과 연관이 있어 추가 공개에 한계

III. 정책 제언

□ 소규모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고를 위하여는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동기 부여
- 그러나 이러한 기업은 에너지 소비가 적고 경영환경의 제약이 많아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절약 효과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음
 -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강화에 중요하나²⁾ 이는 국가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한 사안임

2) Bradford와 Fraser(2008)는 중소기업의 환경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는 에너지 가격 인상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하였음.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증진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기업의 수입 증진이나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 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

□ **그린크레딧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감축실적 수익화를 위하여는 대기업이 CSR 차원에서 일반 크레딧과는 다른 경로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감축효과를 즉각적 혜택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절약 동기 부여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실적 측정·검증 비용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크레딧의 가격이 평균을 크게 웃돌아 시장성이 떨어지리라는 우려가 지배적
 - 사내 규정, 구매 부서의 반대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 고가의 크레딧을 구매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 존재
 - 설문 응답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 에너지 절약을 통한 수입 창출 가능성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데에 회의적
- 대기업이 사회공헌펀드 등을 통해 일상적 구매활동과 다른 CSR 차원에서 중소기업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는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차원에서 CSR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 사회공헌펀드 활용도 검토 가능³⁾
- 다른 형태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기업 CSR 활동으로서 공급사슬 온실가스 감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정부에서 이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효과성 차원에서 배출량이 적은 이들 기업을 관련 활동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 대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매우 낮은 소규모 중소기업도 다수

3) 2010년 사회공헌실태조사에 응답한 220개 기업은 2010년에 총 2조 8,735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09년 대비 약 8.4%, 2008년 대비 약 33.0% 증가된 금액임(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관련 인식 전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CSR 분야의 경험 활용 가능

- 중소기업의 실질적 감축노력을 위한 인식 전환과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은 높은 편이나 실제 행동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정보 부족도 장애요인인 것으로 파악
- 경영진의 인식이 중요하고 일상적 활동 위주로 실행된다는 점 등에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행동과 CSR 사이에는 유사점이 다수 존재⁴⁾
 - 중소기업 CSR 확산에서 관련 정보 제공과 이를 통한 경영진의 인식 전환의 중요성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행동 제고에 참고 가능한 부분
 - 경영진의 인식 전환은 별도의 추가적 비용 없이 일상적 활동에서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이를 통한 간접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계
- 경영진의 인식 전환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효과가 높았던 일반 국민 대상 프로그램의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
 - 동종업체와 같이 연관성 높은 타사의 우수사례, 실적 비교가 가능한 벤치마크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관심을 높이는 접근 방식 채택
 - 에너지 절약의 실제 혜택을 중시하는 개인의 인식 변화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 대상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경영진 인식 전환은 유사
- CSR 인식 제고를 통한 감축노력 강화는 CSR 인식 부족, 낮은 이해관계자 압력 등으로 인해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

4) 중소기업 CSR의 특징과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European Multistakeholder Forum on CSR (2004), Ministry of Industry, Tourism and Commerce, Spain (2005), Jenkins (2006), EC (2007), FSB (2008), Rivera-Lirio와 Muñoz-Torres (2010) 등이 있음.

IV. 기대 효과

- 실질적 혜택의 중요성, 정보 제공 필요 등 기존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확인함으로써 ‘현 정책기조 유지+세부 정책적 보완’ 필요성 제시
 - 그린크레딧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수반하는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실행 단계에서 한계에 봉착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정부 지원은 일정 수준 제공되고 있으나 소규모 중소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 대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CSR 활동을 중소기업 크레딧 구매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 확대
 - 확충되고 있는 대기업의 CSR 재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크레딧의 수요처를 확보한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대·중소기업 상생의 정책효과 획득 가능
- CSR 관련 연구결과 활용 방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노력 제고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과 인식 전환의 효과성 증대 기대
 - 효과적 정보 제공 → 경영진 인식 전환 → 일상 경영활동에서의 에너지 절약 강화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감축노력 제고 가능성
 -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가 다른 중소기업에 정보로서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도 가능

<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에너지관리공단(2008),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분석 - 광업·제조업 부문」
- 전국경제인연합회(2011), 「2010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Bradford, Jaryn and Evan D. G. Fraser (2008) “Local Authorities, Climate Change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dentifying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to Reduce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15, pp. 156 - 172.
- EC (European Commission) (2007),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 How to Help More Small Businesses to Integ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to What They Do*. (available online)
- European Multi-stakeholder Forum on CSR (2004), *Report of the Round Table on ‘Fostering CSR among SMEs’*. (available online)
- FSB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2008),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the Small Business Owner*. (available online) London: FSB.
- Jenkins, Heledd (2006), “Small Business Champion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67, pp. 241 - 256.
- Ministry of Industry, Tourism and Commerce, Spain (2005) *The Role of Government in Fostering CSR among SMEs: Business Case*. (available online)
- Rivera-Lirio, Juana M. and María J. Muñoz-Torres (2010),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panish Region of Valencia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MEs. A Multi-stakeholder Vision on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Vol. 53, pp. 573 - 590.

정책 이슈페이퍼 12-06

사회책임경영을 고려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촉진 방안

2012년 11월 6일 인쇄

2012년 11월 7일 발행

저 자 이 호 무 외

발행인 김 진 우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437-713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전화: (031)420-2114(代) 팩시밀리 : (031)422-495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

인 쇄 범 신 사 (02)503-8737
